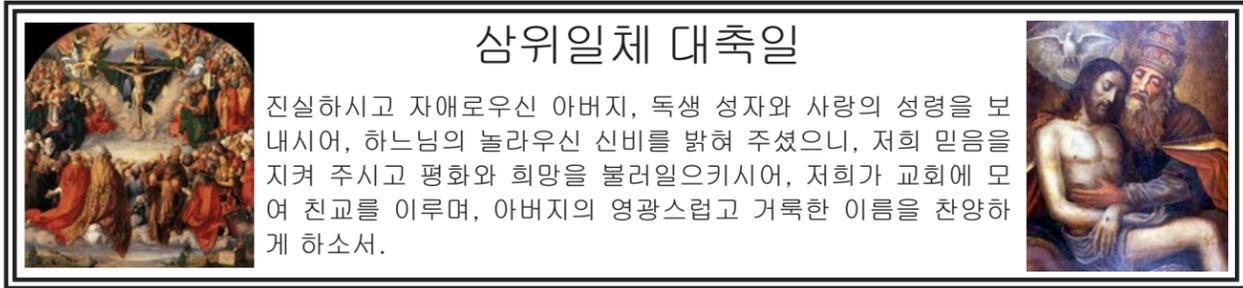


공동체 소식



삼위일체 대축일

진실하시고 자애로우신 아버지, 독생 성자와 사랑의 성령을 보내시어, 하느님의 놀라우신 신비를 밝혀 주셨으니, 저희 믿음을 지켜 주시고 평화와 희망을 불러일으키시어, 저희가 교회에 모여 친교를 이루며, 아버지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6월 기도지향

- 유길수 크리스토퍼, 유경애 아녜스 가정
- 이우영 가브리엘, 김수연 율리안나 가정

☞ 교황님의 기도 지향 : 실업자들이 품위 있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움과 일자리를 찾도록 기도합니다.

예수 성심 성월

교회는 해마다 유월을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신 예수 성심에 대한 공경과 묵상을 강조하는 예수 성심 성월로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호소하십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마태26,38).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마태11,28).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시며 하느님이시기에 그 마음은 절대적이고 무한한 사랑의 원천이십니다.

청주교구 사제 모임

- 기간 : 6/16(월) ~ 6/20(금) 4박5일
- 장소 : 앵커리지 한인분당

견진증명서

지난 3/28, 홀리트리니티에서 견진성사를 받으신 형제자매님들은 견진증명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세례 본당에 견진성사를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감사에 따른 지침

- 현금/교부금 수납자 별도 선정
- 재무 대리 육성
- 재정보고 Quickbooks 침삭(번역) 금지
- Quickbooks 파일 백업과 재정 서류 보관 철저

평협회의

- 일시 : 6/22(일) 오후 1시
- 장소 : 회관

기타

- Father's Day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상 모든 아버지들이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부성을 닮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이번 주, 화/목요일 평일미사는 없습니다.
- 저희 공동체는 재무감사에 따른 캔사스대교구의 지침을 최대한 수렴하여 재정의 투명성에 힘쓰겠습니다. 평협 일동.
- 구역회의 결정대로 6~8월까지 구역모임은 없습니다.
- 오랫동안 저희 공동체와 함께 하시고 애써 주신 안동현 프란치스코/지은경 리브가 가정이 뉴멕시코로 이사를 갑니다. 아쉬운 마음으로 석별을 고합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들	성 체	마 침
81	512	165/174	83

주일미사 복사

	향 복사	시종 복사
금주	문호진 (안토니오)	정병훈 (보니파시오)
	이원준 (요 한)	이우영 (가브리엘)
차주	차서은 (세라피나)	고영방 (스테파노)
	고평원 (프란치스코)	안광민 (야 고 보)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지은경 (리 브 가)	문석찬 (요 셉)	백문주 (엘리사벳)
		차호섭 (요 셉)	최선윤 (마 리 아)
차주	최은미 (아 네 스)		

애찬 봉사자

금주	김시연, 신혜경, 조경희, 김말자, 배복선
차주	Father's Day 만찬

헌금 봉사자

금주	최은미 (아 네 스), 박희영 (카타리나)
차주	정수한 (베 드 로), 김병철 (베네딕토)

우리들의 정성

	참례인원	헌금	교부금
6/8	98명	367불	1,860불
	유길수, 감영진, 한봉경, 홍순익, 김태중, 안동현, 이영민, 정연숙, 차호섭(총 9세대)		

삼위일체 대축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2014년 6월 15일

캔사스한인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김원철 바실리오 412.576.5075 willkim777@gmail.com

미사시간  
주 일:11:00 AM  
화요일: 7:00 PM  
목요일: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회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고 그분께 의탁하는 사람입니다. ‘삼위일체’는 어려운 개념과 공식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치와 사랑을 뜻하는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에게서 흘러나온 사랑에서 교회는 탄생하였고, 우리는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삼위일체의 사랑에 따른 삶의 길은 일치와 헌신입니다. 그러한 삶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며 기쁜 마음으로 이 미사에 참여합니다.

성화해설

사랑이신 성부 성자 성령

“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요한 3,16-17)

오늘 우리는 사랑이신 하느님의 축일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당신 아드님을 우리 죄값의 대속물로 지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가장 너그러운 사랑으로 당신 아드님을 내어주십니다. 그 아드님은 우리에게 대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바치시고, 십자가의 결실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제 1 독 서 : 탈출 34,4ㄱㄷ-6.8-9 < 주님은,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이다. >



- 화 답 송 : ◎ 세 세 대 대 에 찬 미 찬 양 받 으 소 서 -
- 저희 조상들의 주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영광스러운 당신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받으소서. ◎
  - 영광스러운 궁전에서 찬미받으소서. ◎
  - 당신 왕좌에서 찬미받으소서. ◎
  - 케루빔 위에 좌정하시고 심연을 굽어보시는 이여 찬미받으소서. ◎
  - 드높은 창공에서 찬미받으소서. ◎

제 2 독 서 : 2코린 13,11-13 <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 >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 받으소서. ◎

복 음 : 요한 3,16-18 <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

# 쉐 마

##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 씬을, ‘하느님께서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로 해석합니다. 맞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나를, 우리 개개인을 사랑하십니다. 동시에 하느님께서서는 나, 너, 우리, 동물, 식물, 무생물,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과학 상식으로 말하자면 우주 전체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하느님은 나를 더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며 행동합니다. 이걸 어쩌면 양심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느님은 나만 사랑하신다’가 더 솔직한 표현이라 생각됩니다. 하느님과 나의 일대일 관계에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느님께서 나를, 나만 사랑하신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런 분이신가요? 나 한 사람만 사랑하시는 작은 분이신가요? 우주를 다 담고도 넉넉한 분이라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 나만 사랑하고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하느님께서서는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곳,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직접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시고 얼마나 흡족해 하셨습니까. 사랑으로 만드셨으니 아름답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모상대로 지어 만드신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엽고 사랑스런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이 더 잘 자라고, 더 행복하고, 궁극에는 당신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지극 정성으로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오매불망 우리 생각만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를 고민 중이십니다. 그런 하느님을 모른다거나 배척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을 멀리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산다고 합니다. 부모님, 형제, 친구, 연인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사랑이 빠지면 우리들이 나누는 이

러한 인간적 사랑은 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전함을 넘어 심판을 하게 됩니다. ‘내 사랑이 더 깊니, 너는 왜 사랑을 하지 않니, 그건 사랑이 아니야’ 이렇게 서로를 심판하게 됩니다. 사랑을 하기 위해 모여서 사랑을 이야기 하고, 사랑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우리는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하고 심판받는 자리에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사랑이 있어야 할 자리에 심판에서 비롯된 불신과 의심, 죄가 남습니다.

이 불신, 미움, 의심, 죄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심판을 물리고 다시 하느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려 오셨습니다.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해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어떠한 판단도 생각도 없이 온전히 그 사람만을 위한 사랑의 마음뿐입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끝임 없이 지켜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진짜 사랑을 하기도 합니다. 그 사랑 안에는 하느님께서 자리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이끄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께서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부족한 사랑을 채워주십니다. 당신께서 직접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 몸과 마음 안에서 다시 일으켜주십니다.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사랑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하느님과 함께 우리도 세상으로 나가 세상을 사랑합시다. 내 가족, 내 공동체에 머물지 말고, 세상, 우주로 우리의 사랑을 넓힙시다. 하느님과 예수님처럼.

- 예수회 김동일 신부 -

# 주춧돌

## 제 1 편 하느님 공경

### 제4장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요한 3,16-17).

#### < 주석 >

**너무나:**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심을 강조하여 표현한 말이다.

**외아들:** ‘하느님의 외아들’이라는 이름은 하느님 아버지께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고 영원한 관계를 의미한다.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의 외아들이시며, 또한 하느님 자신이다.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필수적이다(가톨릭교회교리서, 454항).

**구원:** 세상이 구원을 받는 것은 외아들 예수를 통해서다. 예수님의 사명수행은 전적으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사명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단죄하고 멸망에 빠지게 된다(요한 12,47 참조).

#### < 설명 >

고위 공직자 청문회 때에, 자녀 군복무 문제가 거론되곤 한다. 군복무로 아들이 고생할까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군대에 보내지 않는 사례들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느님께서서는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외아들을 험악하고 죄 많은 세상에 보내주셨다. 세상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구세주’란 세상을 구원하신 분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 구원을 위하여 강생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요, 나의 생명의 은인이시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다.

#### < 교회 가르침 >

▶ ‘예수’라는 이름은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다.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아기를 ‘예수’라고 불렀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마태 1,21) 분이시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주신 이름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이 이름밖에는 없습니다”(사도 4,12; 가톨릭교회교리서 452항).

▶ 인간이 그토록 “위대한 구세주를 얻게” 되었다면, 인간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느님이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 주시었다면” 창조주의 눈에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이겠는가?(인간의 구원자, 10항).

#### < 어록 >

▶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는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느님은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느님은 당신이 우리 각자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복녀 마더 테레사).

▶ 예수는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뿐인 사진이다(클라우스 베르거).

- 『신앙생활 보감』, 청주교구 복음화연구소, 2013 -